

[中韩对照]

名著名篇阅读丛书

红楼梦

홍루몽

曹雪芹 著

洪成一 魏 国 黄春华 编译

两弯似蹙非蹙笼烟眉，
一双似喜非喜含情目。
态生两靥之愁，娇袭一身之病。
泪光点点，娇喘微微。
娴静似娇花照水，行动如弱柳扶风。
心较比干多一窍，病如西子胜三分。

[中韩对照]

名著名篇阅读丛书

红楼梦

홍루몽

曹雪芹 著

洪成一 魏 国 黄春华 编译

辽宁民族出版社

© 洪成一 魏国 黄春花 2006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红楼梦 / (清) 曹雪芹著; 洪成一, 魏国, 黄春花
编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6. 9

(中韩对照名著名篇阅读丛书)

ISBN 7-80722-163-1

I. 红… II. ①曹… ②洪… ③魏… ④黄…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②长篇小说—中国
—清代 IV. H559.4: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117379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 145mm×210mm

印 张: 9¼

字 数: 206千字

印 数: 1-3000

出版时间: 2006年9月第1版

印刷时间: 2006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卢 明

定 价: 18.00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E mail: lnmz@mail.lnpgc.com.cn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承印厂调换。

[中韩对照]

名著名篇阅读丛书



钢铁是怎样炼成的

简·爱

无情

红楼梦



中韩对照名著名篇阅读丛书编委会

主 编 洪成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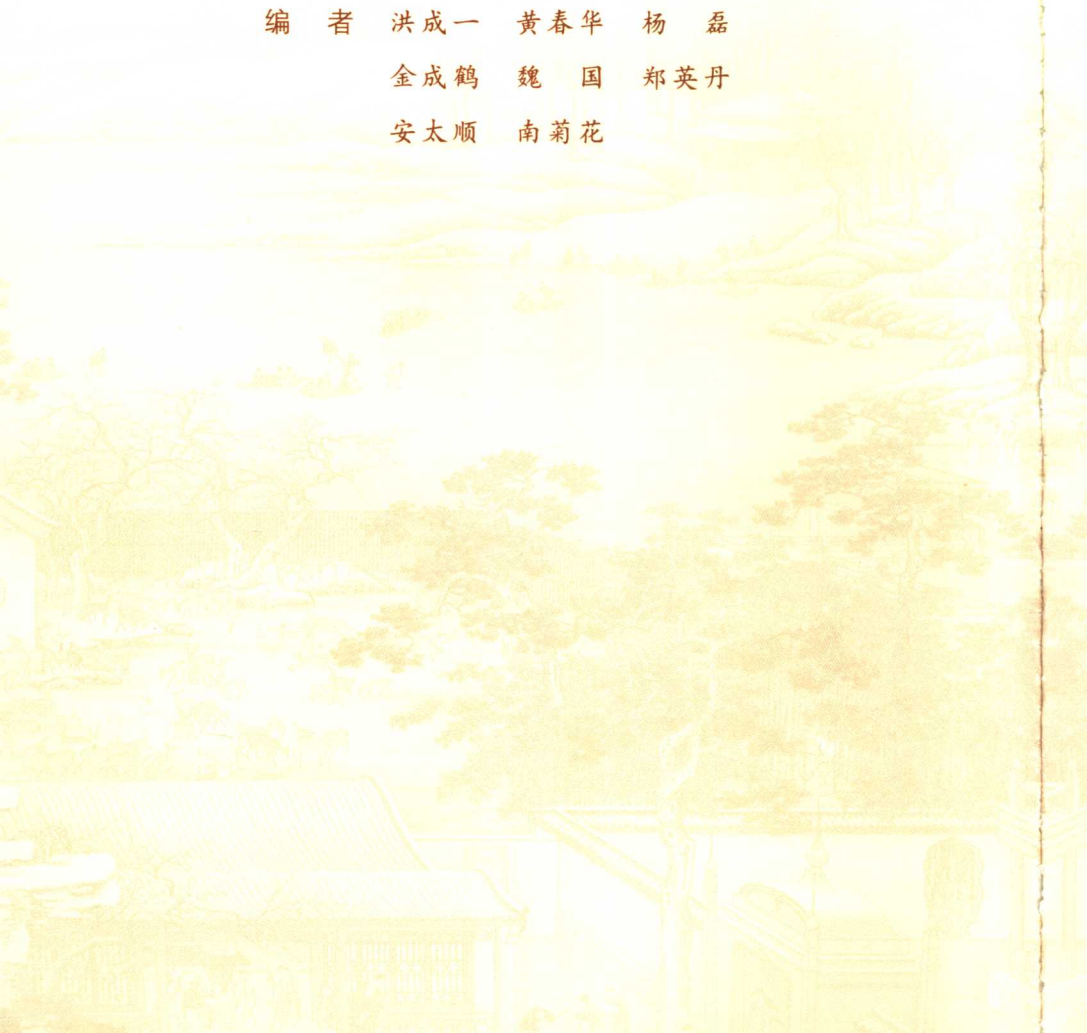
副主编 闵永大（韩）

编 委 黄春华 杨 磊 金成鹤

编 者 洪成一 黄春华 杨 磊

金成鹤 魏 国 郑英丹

安太顺 南菊花





红楼梦

홍루몽

목 차 ◇



저자와 작품 소개	4
제1회 서문	6
제2회 대부인은 외손녀를 맞아들이다	18
제3회 문병을 하여 대옥은 시기를 느끼다	58
제4회 촌노파의 이야기는 끊임없다	82
제5회 대부인은 대관원에서 연회를 베풀다	108
제6회 임대옥은 시고를 불살라 옛정을 끊다	184
제7회 강주선녀의 혼이 이한천으로 돌아가다	240
제8회 보옥은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 인연을 끊다	264



目 录 ◇



	作者与作品简介	5
第一回	引子	7
第二回	接外孙贾母惜孤女	19
第三回	探宝钗黛玉半含酸	59
第四回	村姥姥是信口开河	83
第五回	史太君两宴大观园	109
第六回	林黛玉焚稿断痴情	185
第七回	苦绛珠魂归离恨天	241
第八回	中乡魁宝玉却尘缘	265



저자와 작품 소개

고 전소설 「홍루몽」은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18세기 중엽에 창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200여년 동안 줄곧 세상에 널리 퍼져왔다.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1715-1763년)의 이름은 “점”이고 자는 “몽원”, 호는 “설근” 또는 “근포”, “근계”라고 한다. 그의 선조는 원래 한족이었으나 일찍이 만주족의 호적에 올라 있었다. 조설근의 조부 조인은 강희황제의 글동무로 총애를 받아왔다.雍正 5년(1727) 조설근의 아버지는 파직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여 이듬해 남방에서 북경으로 이사했다. 그 후 그의 가문은 계속 기울어졌다. 만년의 조설근은 북경의 서쪽 교외에서 가난하게 살았는 바 그림을 팔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다재다능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런 여건 속에서도 그는 분발하여 “십년을 연구하고 다섯 번이나 고쳐 써서” 생전에 「홍루몽」 앞 80회를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홍루몽」은 가보옥과 임대옥의 사랑비극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가(賈)씨 등 4대 봉건가족의 흥망을 씬으로 써 청나라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봉건사회가 필연적으로 멸망해가는 역사적 추세를 반영하였다.

이번에 편찬한 「홍루몽」은 지면의 제한으로 주로 가보옥과 임대옥의 사랑 이야기 일부를 선택하였으며 중간에 유노파가 대관원을 구경하는 부분을 골라 넣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원작의 제1장을 서문으로 고쳤다. 서문 외의 다른 장절의 제목은 전부 원작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수준의 한계로 이 편역본에는 많은 부족점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作者与作品简介

古典小说《红楼梦》是在中国文学史上占据重要地位的一部伟大的作品。这部小说创作于18世纪中叶。从那时起到现在为止的200多年当中，一直在世上广为流传。

《红楼梦》的作者曹雪芹(1715-1763年)，名霁，字梦阮，号雪芹，又号芹圃、芹溪。祖先原为汉人，后入旗籍。曹雪芹的祖父曹寅做过康熙的伴读。雍正五年(1727)，曹雪芹之父被人参奏，革职抄家。次年曹家从南京迁回北京，家道逐渐败落。曹雪芹晚年流落到北京西郊，生活穷困，靠朋友接济和卖画维持生计。他性格豪放，多才多艺。在穷困艰难的环境里，“披阅十载，增删五次”，坚持写作《红楼梦》，去世后遗留下《红楼梦》前80回的稿子。

《红楼梦》以贾宝玉和林黛玉的凄凉爱情故事为线索，叙述了以贾府为代表的4大封建家族的衰落史，同时也向读者展示了一幅清朝时期的社会生活画卷，反映了封建社会必然走向灭亡的历史趋势。

本次编译《红楼梦》，由于篇幅上的限制，主要选取了林黛玉和贾宝玉的爱情故事片段，中间穿插了刘姥姥二进大观园。另外根据内容需要，将原著的第一回改为引子。除引子之外，其余篇章的题目都是按照原著截取的。由于水平所限，编译得不尽如人意，在此，敬请各位读者批评指正。

제1회 서문

이 는 이야기의 첫 회로다. 먼저 말해두거니와¹ 저자는 허무한 꿈 길을 더듬고 나서 일부러 진짜 사실은 감추고 '영기가 통한 돌의 이야기'를 빌어 이 「석두기」를 지었기에 '진사온'이라 한다.

그런데 이 책에 씌어진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냐고 묻는다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평생 세속에 붙좃기며 분주히 지내었건만 이루어 놓은 일이란 하나도 없다. 문득 지난날 함께 노닐던 아녀자들에게 생각이 미치어 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그들의 언행이나 식견이 죄다 나보다 높으니 내 당당한 사나이로 태어나 어찌하여 치마 두른 아녀자들만 못했단 말인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실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내 오늘 짐짓 붓을 들어 지난날 하느님과 조상의 은덕을 입어 명주비단으로 몸을 감고 산해진미로 배불리던 그 시절에 부모와 형제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스승과 벗들의 충고를 듣지 않아 덧없는 반생을 헛되이 보내다보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일도 해놓지 못한 이 허물을 이제 이야기로 엮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 하는 바이다.

나의 허물은 씻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흉허물을 덮어 감추려는 나의 불찰로 하여 규방속의 재간 많은 아녀자들의 존재가 매몰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막살이에 몸을 두고 웅색한 나날을 보내는 처지요. 아늑한 자연의 꽃밭 속에 묻혀 있는 몸이지만 한번 사려 먹은 뜻을 버릴 수가 없고 한번 내여 든 붓을 놓을 수가 없다. 내 비록 학문이 짧아 글을 지을만한 위인은 못되나 향간의 속된 말로라도 두루 이야기를 엮어 규방속에서나마 돌려보게 한다면 사람들의 울적한 마음을 더

第一回 引子

此 书开卷第一回也。作者自云：因曾历过一番梦幻之后，故将真事隐去，而借“通灵”之说，撰此《石头记》一书也。故曰“甄士隐”云云。

但书中所记何事何人？自又云：“今风尘碌碌，一事无成，忽念及当日所有之女子，一一细考较去。觉其行止见识，皆出于我之上，何我堂堂须眉，诚不若彼裙钗哉？实愧则有余，悔又无益之，大无可奈何之日也！当此，则自欲将已往所赖，上赖天恩，下承祖德，锦衣纨绔之时，饫甘餍美之日，背父兄教育之恩，负师友规谈之德，以致今日一事无成，半生潦倒之罪，编述一记，以告普天下人。

虽我之罪固不能免，然闺阁中本自历历有人，万不可因我之不肖，自护己短，一并使其泯灭也。虽今日之茅椽蓬牖²，瓦灶绳床，其晨夕风露，阶柳庭花，亦未有妨我之襟怀笔墨者。虽我未学，下笔无文，又何妨用假语村言，复可悦世之目，破人

1 거니와: 表示并列并略带递进关系的关联词。

2 茅椽蓬牖: ‘牖’는 창문이다. 이 단어는 풀로 만든 집을 이르는 말인데 아주 가난하다는 뜻을 비유한다.

러 풀어줄 수는 있으리라. 그래서 “가우촌”이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제 그 근원을 말하게 되면 모르지기 황당한¹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다시 그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과연 흥미진진할 것이니 먼저 이야기의 유래부터 밝혀서 독자들의 의혹을 풀어 주리라.

멀고먼 옛날, 여와가 돌을 녹여 하늘을 깎던 때의 일이다. 대황산 무계애라는 곳에서 높이 십이 장, 둘레 이십사 장이나 되는 큰 돌을 삼만 육천오백한 개를 만들었다. 여와 씨는 그 중에서 삼만육천오백 개만 쓰고 한 개가 남은 것을 청경봉 아래에 버려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여와의 손길을 거친 뒤부터 영기가 통했다. 다른 돌들은 모두 하늘을 깎은 거룩한 존재로 빛을 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재간이 모자라 버림 받은 것을 생각하니 여간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늘 울적한 심화를 누를 길이 없었고 마냥 눈물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돌은 자기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문득 저쪽으로부터 키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늙늙한 중과 도사가 다가왔다. 그들은 청경봉 밑에 이르러 그 돌가에 앉더니 다리를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이 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허리띠에 찰 수도 있고 손바닥에 굴릴 수도 있게끔 부채찍지 만하게 줄이었다.

중은 그 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리면서 웃었다.

“이래 놓고 보니 생김새만은 보물 같이 보이지만 별로 확실한 쓸모가 없으니 내 이제 그럴만한 글자라도 몇 자 새겨 놓아 누구나 보면 영물인 줄 알도록 해주지. 그리고 자네를 저 번영하고 창성한 나라, 학문의 향기 짙은 고귀한 가문, 울긋불긋 꽃동산에 덮인 번화한 땅, 인심이 후하고 부유한 고장으로 데려다가 분에 맞는 향락을 누리게 할 테이다.”

옥은 이 말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중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저에게 누리게 해준다는 향락은 어떤 향락이며 데려다준다

第一回 引子 9

愁闷，不亦宜乎？”故曰“贾雨村”云云。

列位看官：你道此书从何而来？说起根由虽近荒唐，细按则深有趣味。待在下将此来历注明，方使阅者了然不惑。

原来女娲氏炼石补天之时，于大荒山无稽崖练成高经十二丈，方经二十四丈顽石三万六千五百零一块。娲皇氏只用了三万六千五百块，只单单剩了一块未用，便弃在此山青埂峰下。

谁知此石自经锻炼之后，灵性已通。因见众石俱得补天，独自己无材不堪入选，遂自怨自叹，日夜悲号惭愧。

一日，正当嗟悼之际，俄见一僧一道远远而来，生得骨格不凡，丰神迥异，说说笑笑来至峰下，坐于石边，高谈快论。偶见此美玉鲜明莹洁，且又缩成扇坠大小的可佩可拿。

那僧托于掌上，笑道：“形体倒也是个宝物了！还只没有实在的好处，须得再镌上数字，使人一见便知是奇物方妙。然后携你到那昌明隆盛之邦，诗礼簪缨之族，花柳繁华地，温柔富贵乡去安身乐业。”

石头听了，喜不能禁，乃问：“不知赐了弟子那几件奇处，又不知携了弟子到何

1 황당하다: 荒唐，无稽之谈，毫无根据的(话语)。

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똑똑히 알려줄 수 없는지요? 그래야 저도 궁금하지 않겠지요.”

“허허, 안 듣는 게 맞이야. 때가 되면 자연 알게 될 테니까.”

하고 중은 옥을 소매 안에 넣고 나서 도사와 함께 표연히 사라졌다.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 뒤로 몇 세기가 지나고 또 몇 겁이 지났는지 모른다. 하루는 홀룩한 도사를 찾으며 각지를 돌아다니던 공공도인이 우연히 대황산 무계애 청경봉을 지나다가 언뜻 절벽 같은 큰 바위에 선명한 글자들이 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공도인이 그것을 처음부터 읽어보니 태고 적에 하늘을 깎을 자격이 없었던 이 바위가 옥으로 변하여 세상에 태어났었는데 망망대사와 묘묘진인의 인도로 속세에 내려가 인간세상의 이별의 슬픔과 상봉의 기쁨, 온갖 세태와 인정의 쓰고 단 맛¹을 죄다 맛보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뒤에는 또 다음과 같은 시가 한 수 새겨져 있었다.

이 몸이 하늘을 깎을 재주가 없어
속세에서 해매기를 몇몇 해이던고
전생 후생의 기구한 이 운명을
누구의 손을 빌어 세상에 전하리요?

이 시의 다음에는 또 이 돌이 속세에 떨어졌던 곳이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시초로부터 그가 겪어온 일들이 자세하게 씌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는 가정 세말사로부터 규방속의 아녀자들의 한가한 글 놀음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울적한 심사를 풀며 심심풀이로 한번 읽어 볼 만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야기가 생긴 왕조와 연대, 나라와 지역이 밝혀져 있지 않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공공도인은 바위를 향해 물었다:

“여보시오, 돌양반! 당신은 자기의 경험담이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여

第一回 引子 11

地方？望乞明示，使弟子不惑。”

那僧笑道：“你且莫问，日后自然明白的。”

说着，便袖了这石，同那道人飘然而去，竟不知投奔何方何舍。

后来，又不知过了几世几劫，因有个空空道人访道求仙，忽从这大荒山无稽崖青埂峰下经过，忽见一大块石上字迹分明，编述历历。

空空道人乃从头一看，原来就是无材补天，幻形入世，蒙茫茫大士，渺渺真人携入红尘²，历尽离合悲欢炎凉世态的一段故事。后面又有一首偈云：

无材可去补苍天，
枉入红尘若许年。
此系身前身后事，
倩谁记去作奇传？

诗后便是此石坠落之乡，投胎之处，亲自经历的一段陈迹故事。其中家庭闺阁琐事，以及闲情诗词倒还全备，或可适趣解闷。然朝代年纪，地舆邦国，却反失落无考。空空道人遂向石头说道：

“石兄，你这一段故事，据你自己说有

1 쓰고 단 맛: 直译为
“苦味及甜味”，意指人
生百味。

2 红尘: 인간 세계를 가
리키는 말.